

原始採石問題에 대한 小考

崔 夢 龍

最近 支石基의 蓋石위에 나타난 人爲的인 堅穴孔에 對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提起되고 있는데 堅穴孔을 자세히 살펴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즉 하나는 長方形의 堅穴孔이며 또 다른 하나는 圓形 내지 橢圓形의 堅穴孔이다.

前者의 境遇 大개 3×6 cm 寬이 내지 2 cm 程度의 淺은 것이며 例外 없이 2 내지 3 個가 一列을 이루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으며, 後者는 보통 鷄卵 하나가 들어가는 程度의 크기며 좀 더 큰 것은 直徑 10—15 cm 나 되는 것도 있다.

寬이는 大개 10 cm 內外이며 外觀上 圓錐形을 거꾸로 엮어 놓은 것 같은 式이 特徵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이 경우 列을 이루지 않고 蓋石前面에 걸쳐 많으면 數十個가 無秩序하게 群集해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이 人爲的인 堅穴孔을 이야기할 때는 分明히 長方形이나 圓形이냐를 따져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

왜냐 하면 圓形堅穴孔의 境遇를 보면, 最近 京畿道 楊州郡 琴南里 支石墓群中 六基에서 10—30 個의 圓形堅穴孔이 發見되어 性穴(Cup-mark)로 보아야 된다는 提案이 있고 ① 또 全南 和順郡 綾州面 寒泉里 支石墓의 蓋石위에서 約 七〇個(寫眞 3), 同 長城郡 長城邑 龍興里 泰岩部落

뒷산 南方式 支石墓 등(寫眞 1, 2)에서 이와 같은 類의 堅穴孔의 存在에 對한 報告例가 속속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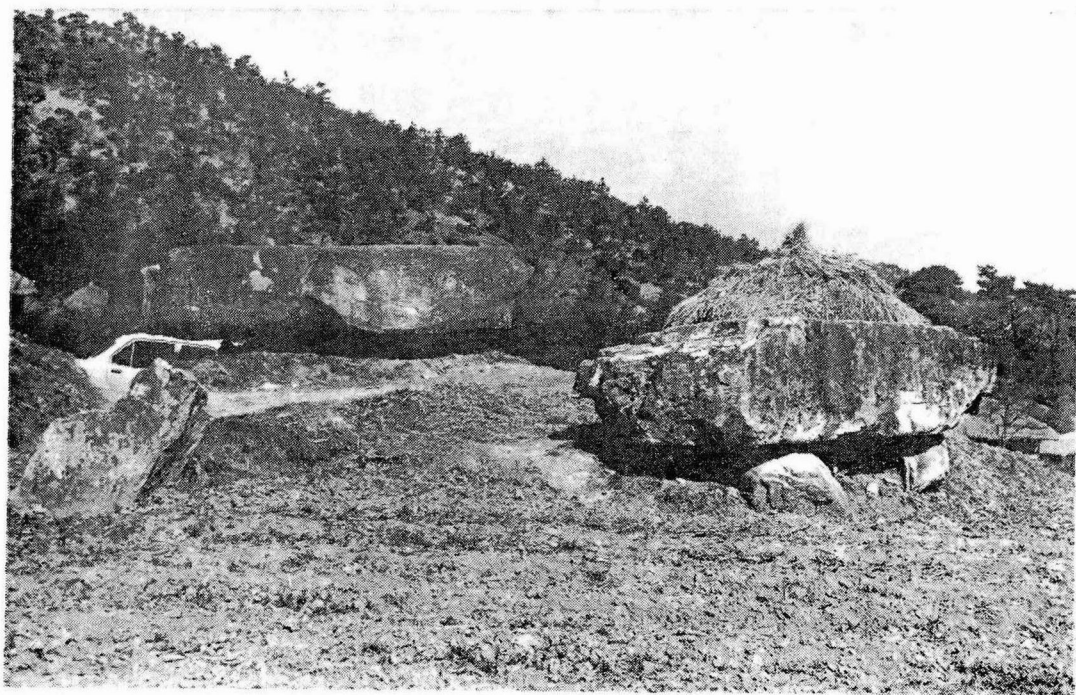
그러나 재미 있는 것은 統一新羅時代에 屬하는 感恩寺址 雙塔(國寶 112號)、江華島 河帖面 長井里 所在 高麗末 五層石塔(寶物 10號)、京畿道 麗州郡 倉里·下里 所在 高麗石塔(寶物 91號와 92號) 등의 上·下層基壇石 上部에 보이고 있어 佛敎的인 要素와의 結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點이며, 또 慶尙北道 高靈郡 開津面 良日洞에서 無文土器遺蹟과 關係가 있는 岩書② 全北 益山 山頂에서 發見된 알바위③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卵生說話와도 깊은 關係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圓形堅穴孔이 古代 支石墓나 無文土器와 關係된 遺蹟·石塔 등 여러 곳에서 發見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現在로서 豊饒와 生産을 象徴하는 性穴(cup-mark)로서 ④ 또 그 佛敎의 効力이 점차 쇠진할 때쯤 佛塔에다 마구 과농고 鷄卵이나 쌀알을 넣어 得男을 祈願하는 民間信仰의 習俗에 이르기까지 널리 傳播되고 있는 것은 注目할 만하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圓形堅穴孔의 起源은 確實하지 않지만 現在로서 시베리아에서는 新石器時代末에 나타나 靑銅器時代가 되면 完全히 發達하고 岩刻畫(Petroglyphs)⑤와 關係를 지어 生覺해야 될 것 같다. 實年代도 大略 紀元年 7, 8 世紀 以前을 오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 下限은 最近까지도 알바위라 불리워지는 民間信仰과 關聯되는 점으로 보아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關한 具體的인 研究가 없어 이 以上の 推論은 禁하고 계속 信憑性 있는 資料의 增加를 期待하는 바이다.

다음 長方形堅穴孔은 現在 江華郡 河帖面 三巨里 所在 史蹟 137號로 指定되어 있는 代表的인 北方式 支石墓의 蓋石위에서, 또 全南 白岫面 大田里 터진개 所在 南方式 支石墓⑥의 蓋石 위에서 보이고 있어 注目



1. 全南 長城郡 長城邑 龍興里 泰岩部落所在 南方式支石墓



2. 泰岩部落所在 支石墓 蓋石上部에 나타난 圓形堅穴孔(直徑 3-4cm)

된다.

즉 이러한 長方形堅穴孔은 支石墓의 形式과 關係 없이 支石墓의 蓋石 위에서만 發見되며 現在 다른 遺構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長方形堅穴孔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前者 圓形堅穴孔과 分離시켜 다른 角度에서 解釋해 보고 싶다.

즉 原始時代 採石場에서 덮힌 흙을 말끔히 除去한 다음 一定量 立體의 塊石의 三면에 걸쳐 石槌(stone-pounder)로서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속에 꼭 끼는 나무를 박아 물을 부으면 自然히 나무는 불어 터지고 石塊는 人工石理에 의해 採石人이 願하는 대로 떨어져 나오는 式⑦에서 보이는 나무를 박기 위한 堅穴孔으로 보고 싶은 것이며 그래야만 長方形의 堅穴孔에 對한 解釋이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支石墓라는 墓制를 採擇하고 있는 社會相을 보면 多種多樣한 石製武器, 利器類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青銅器時代의 流入과 어느 時期에 結付되고 있어 材料의 取得上 또 技術上에서도 採石의 技術이 없었다고 斷定할 수 없다.

現在 長方形堅穴孔이 나타나고 있는 支石墓의 蓋石을 보면 孔列과는 一致하지 않는 不整形한 點이 많다.

물론 石質에는 自然的인 石理現象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많은 努力을 減縮시키는 結果도 充分히 認定할 수 있겠다.

그러나 粘板岩製를 除外한 다른 板石(stone-slab)을 보면 石理現象보다도 正式 採石方法을 使用해 어느정도 整齊된 結果를 얻었음을 쉽게 짐작이 된다.

앞으로 좀더 具體的資料가 提示되었지만 우선 採石方法의 一斷面으로 보아야 옳을 것 같으며 萬一 그렇다면 여기서 한층 飛躍하여 現在에도 支石墓를 築造하고 있는 Schröder 地方의 경우와 같이 통나무를 利用

하여 蓋石을 運搬하는 方法, 여기에 따르는 막대한 人力의 動員과 政治 形態(例를 들어 우리 나라 古代 馬韓人들의 두레組織과 같은 形態) 또 그에 必要한 土着農耕社會에서 可能한 剩餘食物의 問題 등 解決해야만 할 問題가 많으며 考古學이 眞正한 先史文化의 復元(reconstruction)이 라 한다면 비록 조그마한 堅穴孔의 一例이지만 점차적으로 技術史의 人 問題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以上言及한 두 가지 例의 堅穴孔은 分明히 區別이 되어 說明 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고 이의 具體的인 研究를 爲해 資料의 增加를 期待하는 바이다. (1973, 5, 22)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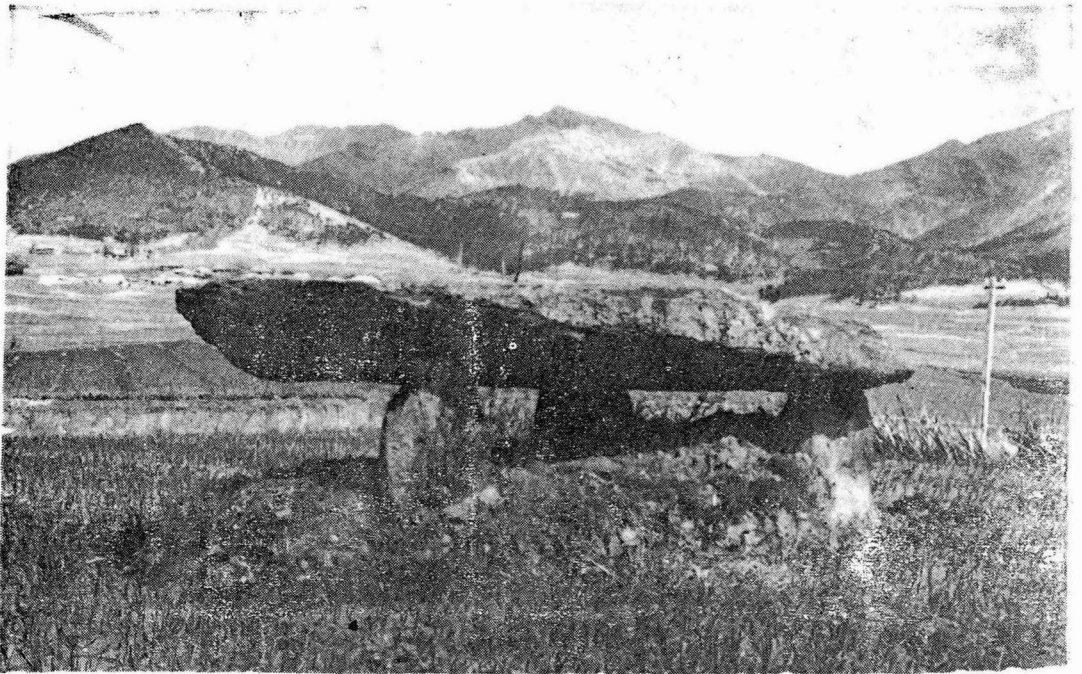
- ① 黃龍潭: 「楊州 琴南里 支石墓調査報告」 慶熙史學 第三輯(慶熙大學校史學會 1972. 1) p. 105
- ② 李殷昌: 「高靈 良田洞 岩畫調査 略報」 考古美術 122號(韓國美術史學會 1971. 12) pp. 24—40
- ③ 石太輪: 「알바이」民學(Folkism) 第一輯(民學會 1972. 4) 所收 pp. 58—62
- ④ 黃龍潭: 「前揭文」 p. 104
- ⑤ A. P. Okladnikov, "Ancient Population of Siberia & its Cultures" Russian translation series of the Peabody, Harvard University Vol. 1 No. 1 1959 pp. 18—19
- ⑥ 拙稿: 「榮山江流域의 先史遺蹟·遺物」 歷史學報 五十九輯 1972. 12.
- ⑦ Leonard Woolley, "The Young Archaeologist" 1961 pp. 79—80



5. 白岫面大田里 터진개所在 支石墓 蓋石上部위에 나타난 長方形 堅穴孔(3×6cm 길이 1cm)



3. 全南 和順郡 綾州面 寒泉里 支石墓 蓋石 위에 나타난 圓形堅穴孔群



4. 全南 靈光郡 白岫面 大田里所在 南方式 支石墓